朝鮮日報
第二夕刊 一日(月)
夕刊十二面

聖上、赤坂離宮行幸

滿洲國皇帝陛下御答訪

【東京電話同盟】二日退京하실 시는 滿洲國皇帝陛下의 御答訪하옵시도록 天皇陛下께옵서는 一日午後二時三十分 宮武侍從長御陪乘, 松平宮相以下를 陪從 시키옵시고 儀式自動車로 宮城御出門、御答訪次 赤坂離宮으로 行幸 하옵셧다 滿洲國皇帝陛下 께옵서는 御車寄까지 御出迎 하옵셧는데 [illegible]

參謀總長宮殿下 御參內

【東京電話同盟】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서는 一日午前九時三十分 宮中에 御參內、天皇陛下께 拜謁、御所管事項을 奏上、御下問에 奉答하시고 十時二十五分 宮中을 御退出하셧다

御惜別의 宮中御宴

【東京電話同盟】紀元二千六百年慶祝의 御親善을 다하옵신 滿洲國皇帝陛下께옵서는 帝都에서의 御日程을 御無事終了하옵셧슴으로 二日東京 御出發 [illegible]

援蔣路遮斷最終點

龍州死守敵猛爆擊

相距僅十二粁地點到達

【南寧三十日發同盟】佛印援蔣의 最大據點龍州城을 指目하고 東方으로부터 進擊하고잇는 我渡邊、林各部隊는 增水로말미암아 浸水한惡路를衝破進擊 三十日朝上金(龍州北方二十五粁)을 占領하고 一部隊는 敗敵을 쫓차 龍州로猛進中이다 [illegible]

【○○三十日發同盟】現地軍當局 發表=陸軍飛行隊偵察에 依하면 三十日午後 我龍州攻略部隊 林、吉田、山本、中尾各部隊는 龍州 [illegible] 二十粁 古城附近에서 [illegible]

英、援蔣行爲停止?

近近크大使에게訓令

【倫敦卅日發同盟】英國外務當局은 目下滇緬道路及、香港經由 對蔣物資輸送禁絶에 關한 日本政府의 要求에 關하여 愼重研究中인데 [illegible]

쳄벌린派非難

【倫敦廿九日發同盟】쳄벌린首相 一派는 [illegible]

外交問題에關해서

陸相、軍總意披瀝

一日米內首相會見코

獨佛休戰委員會

【위스바덴三十日發同盟】獨佛休戰委員會의 初會合은 三十日午前十一時지나 當地 낫사우호텔에서 開催되엿다 [illegible]

【東京電話同盟】二十九日有田外相의 放送을 契機로 [illegible]

蘇軍落下傘部隊

이스마일市를占領

【莫斯科三十日發同盟】蘇聯軍當局은 [illegible]

印度國民派緊急會議

總督、간디翁과會見結果

【시믈라廿九日發同盟】印度總督 리리스가랄氏는 廿九日 시믈라市로 간디翁을 招致하여 長時間 懇談한結果 突然 印度國民會議派運用委員會 [illegible]

英空軍活躍

【倫敦三十日發同盟】英空軍當局 發表 [illegible]

獨空軍英本土空襲

【伯林三十日發同盟】[illegible]

獨伊의對빨칸政策

平和維持가目的

【羅馬三十日發同盟】[illegible]

重慶燒原化決心

【○○基地卅日發同盟】[illegible]

米艦隊、布哇歸還

루大統領의命令?

米艦隊司令長官

스테트멘트發表

【華盛頓三十日發同盟】[illegible]

蘇羅軍衝突眞相

長江敵前渡河

【宜昌三十日發同盟】[illegible]

總督府企畫部에

第四課를新設

[illegible]

歐洲政局月誌

[illegible]

人事·集會

[illegible]

八面鋒

[illegible]

敵性國家擊攘國民大會

와서、들으라!愛國의大獅子吼를!

歐洲動亂의 劫火는 東亞에도 延燒하려고 한다 此際 東亞의 盟主로써 任하고잇는 我等一億國民은 蹶起하여 東亞의天地를 我等의손으로 保護하지안흐면 안된다 事變三周年! 國民은 敵性第三國을 東亞天地에서驅逐하는使命과 責任을 痛感하는同時에 聖戰目的의完遂를 期하지안흐면 안된다 玆에我等은"敵性國家擊攘大會"를 開催키로되엿다 와서들으라! 愛國의大獅子吼를! 그리하야 援蔣、敵性國家를 擊攘하는決意를 굿게하자

時日 七月二日午後五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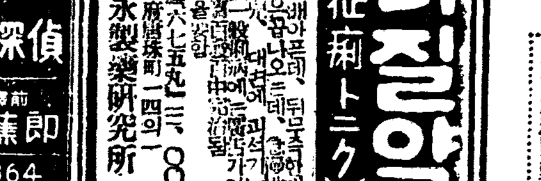
場所 南大門左隣神宮外苑(運動場)

主催 春秋會都下六新聞社

人文評論 七月号 .60
最近의作品傾向·安含光
藝術的形象의槪括·尹圭涉
東亞協同体論의省察·朴致祐
앙드레·마르로-研究·崔載瑞
★創作★
餞說 朴魯甲
少女 金東里
流氓 玄卿駿
浪費 金南天
事變記念特輯
今後에文化的使命이重大…白鐵
나의「꽃과兵丁」…蔡萬植
出戰한友人…林學洙
事變當初와나…崔載瑞
殉職…金南天
大陸認識…柳致眞
文化의理念…李源朝
政治와文化에對한所感…尹圭涉
求理知喝 描寫論 버지니아 울프
葛秋語
망에떠러진女性文學의明星…셀마·라게뢰-프
詩 喬木·李陸史 曠野에와서·柳致環 秋日抒情·金光均
創作月評·李源朝 詩壇月評·石耕 美術時評·金晚炯
創刊一週年記念懸賞、享受規定
文學風土記 開城篇·閔丙徽
京城府光化門通 振替京城一八六三三番 人文社

タイピスト養成
電話賣却
梅毒、淋病 內科、眼科 全治醫院 Dr.med 全鎭極
有給社員急募
急告
賣家
朝報
말더듬이
創業二十年 人事調查 私立探偵 京城驛前 小林蕉郞 電本5364
리질악(征痢トニク) 泰永製藥研究所
新入會員大募集 中學科講義 小學校第五六學年學科講義 朝鮮中學會

讓分別特宅住 清台素 康健間林級高
環境 老松點綴シ自然ノ庭園ヲナシ 住宅地トシテ趣味一〇〇%健康住宅地附近一帶ハ京城府指定綠樹地帶
申込ハ!! 東京建物株式會社分讓部 電話本局二六二·三六一番
賣出期間 自七月一日 至七月十日
場所 京城府城北町バス停留場ヨリ五分間
高級住宅 坪七五圓
林間住宅 坪四二圓
契約方法 契約手付金一割期日二三割 殘額月賦申受ケ



檢眼無料(學生限)
科眼院本於眼檢
◇檢眼◇
◇眼鏡◇
京城驛前 セブランス病院
セブランス眼鏡部

빈대驅除藥
メッチウ
새로운學理 끈힘업는研究에依해서 完成된 タイアンの 빈대驅除藥 メッチウ 이러케效力이 잇는빈대驅除藥이지금까지 잇섯든가 아니꿈에도몰낫든일이다
メッチウ를散布하여야만빈대의襲擊을벗지안코安眠을할수잇다
メッチウ가잇는家庭에 빈대가잇슬리업다
이말은メッチウ를한번使用하여본婦人들의말씀입니다
定價 四十瓦 五十錢 百瓦 一圓
製造元 東京 京城 大安商事株式會社 タイアン驅虫肥料研究所
朝鮮代理店 京城府南大門通二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府南米倉町 株式會社 辻本商店
淸津府浦項洞 株式會社 淸津新井藥房
全朝鮮各地藥店雜貨店에有함

兩次의 '知時雨'로, 移秧成績大體良好

昨年移秧總面積에 二割을 또 超過

農林當局年事를 樂觀

지난번 전조선에 패연히 내린 비 삼우일 남조선 지방으로부터 다 지난번 비와 이번 비로서 이앙 한지시우(知時雨)에 히색이 만면 [illegible] 모내는 를 시작한 저기앙은 절차를 밟아가 경은 거이다되어 상식이앙 하게 되여 각 도 하다 부분 해소되고 대기하고있든 성지방에서는 상식이앙 보고에의하면 작년이상 총면적 지우량은 다음과갓다 중에서는 일제히 격양가(擊壤歌)도 들리게 이앙에 착수하엿는데 지방에따라서는 물이모자라 남조선각지에도 상당한비가 내렷다 만큼은 어지간하여서 한번다시 스며 남조선 지방에서는 한로면 이앙면적과 성적은 좋을터이다 끼드려 주엇으면하고있는중 이날도 계속하야 내리고잇는중이 이를보아 농림당국은 거듭 낙관하고 있다

◆全州二一 ◆光州一〇 ◆木浦一 ◆釜山五二 ◆江陵四 ◆元山一 ◆淸州八 ◆仁川三 ◆京城九 ◆秋風嶺一五 ◆新義八

牙山三十八粍

【牙山支局電話】오늘새벽부터나 리는비는 오전열시까지 벌써삼 농가에서는 대단 기뻐하고있다

靑陽에 喜雨

【靑陽支局電話】지난금일이 심하 기시작하여 약이삼십 「미리」 가량이나 되엇는데 일면에도 비 는 계속하여나리어 청양지방에 논에물이 흡족하여젓음으로 농가에서는 대단 깃버하며 비는 아직도 계속중이다

"朝鮮一"의 愛國班員

南總督, 今朝景福町聯盟愛國日常會에 參席

에저면의 한사람으로활략하엿다 행사는 러명이 사장 하산부(夏山茂)씨의사회로 전 과가치 진행되고 끄트로 남총독 의발성으로 만세를 삼창하고 끗 마쳣는데 경성중앙방송국에서는 소야전(小野田)아나운서를 특파하여 실황을 농음하고 다시 남총독과의사히에 다음과 가튼일문일답을한것까지 농음하 엿는데 이농음은 일본시사설 부터 이십분동안 조선애국일의 모양을 전국에 농음방송하기로 되엿다 問, 각하 아침기분이 어떠합니 까 總督, 오늘처럼기분이 조흔아츰 은업다 더욱지난번비로모자라

는지방에 비가내리고 잇스니 이로써 조선의농촌은 내지에서 도 십팔년이래 아츰마다 비오 나는정월이래 아츰마다 바라보고 지안는 아츰하늘을 바라보고 겄엇는데 오늘아츰은 비를바게되니 참으로유쾌하다 問, 매일아츰 출근하는때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요 總督, 아츰다섯시에 이러나자 곳 목검(木劍)을 삼백오십번 휘둘르고 한시간동안 신문을 보하고도라와 한시간동안 냉수마찰한다음 밥먹고 신문을 읽은다음 등청한다 (사진은 경복정 연맹애국일상회에 참석한 남총독)

都市對抗 씨름

勇士對陣決定

降雨로 二,三日로 順延

경향의 이꺼를 총집중하고 씨름판틀이 손곱아 기달리던 제일회 전조선 도시대항씨름대회는 조선중앙일보사후원회(朝鮮中央力道振興會)주최와 본사후원아래 드디어 오늘 오후세시부터 경성운동장 정구코-트에서 장쾌하막이 열리게 되엿는데 강우로말미암아 내이일과 삼일의 양일로 순연되엿다 일반단체바른씨름부터 참가한지방은 경전(京電)남선(鐘南)특선(特選)의 차부(府廳)양주(楊州)왕십리(往十里)송파(松坡) 장위리(長位里)등의 여덟지방에서 출전하엿고 일반개인씨름에는 안주(安州) 대구(大邱) 신포(新浦) 평양(平壤) 인천(仁川) 원산(元山) 영변(寧邊) 자양(慈陽) 함흥(咸興) 황주(黃州) 참가하엿고 중등학교에서 종로(鍾路) 송도(松都) 인천상수 (仁川商修) 중동(中東) 대동상업(大東商業) 배재(培材) 등의 학교가 출전하였다. 경성상업(京城商業)대동상업(大東商業)명신중학(明新中學)등의 일원 참가하엿다 송도(松都) 인천상수(仁川商修)등이 중등부의 각 학교에서 출장케되엿다 그리고 동대회의 가장 기대와 인기를 모으는 특별선발전에는 바른씨름과 왼씨름의 구리고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선수들은 벌써 경성에 집합하여 중등 이도시대항씨름대회에출장할 선수들은 전부임맥오십여

바른씨름特別選拔戰

嚴福龍(京電)	決勝戰
崔南奎(高陽)	
李泰九(楊州)	
張大學(長位)	
韓基元(揚州)	
李明鐘(松坡)	
洪千村(往十)	
金明順(德亭)	
玄東俊(京電)	
申南植(楊州)	
金德厚(德亭)	
朱學成(松坡)	
李在學(楊州)	
金三文(京電)	
尹學鉉(德亭)	
李泰勳(長位)	

【왼씨름特別選拔戰】

趙昌瑞(安州)	決勝戰
金一鎭(大邱)	
玄寶彥(黃州)	
李成休(新浦)	
崔學鎭(咸興)	
許承和(平壤)	
朱東律(黃州)	
金南鎭(新浦)	
金龍洙(安州)	
文明鎭(咸興)	
孫元伯(大邱)	
金億萬(茂原)	

【一般바른씨름部】

京電	決勝戰
高陽府	
特選	
楊州郡	
往十里	
松坡	
長位	
德亭	

【一般團體왼씨름部】

安州	決勝戰
大邱	
新浦	
平壤	
仁川	
元山	
寧邊	
黃州	
咸興	

【中等왼씨름部】

培材	決勝
永登浦工業	
京城商業	
大東商業	
明新中學	
松都	
仁川商修	
中東	
大東商修	
普成	

全朝鮮地域對抗 自轉車選手權

今日盛大히開幕

朝鮮自轉車競技聯盟主催와 本社後援 全朝鮮地域對抗 自轉車選手權大會는 今一日午前九時부터 平壤 公設運動場에서 擧行하얏는바 成績은 다음과 갓다

◇千米速度【一組】1 李德壽(平安)一分三四秒五 3 崔燦(中央)一分三四秒八

【二組】1 金東俊(中央)一分三四秒五 2 崔鍾亞(咸興)一分三四秒二 3 金在興(中央)一分三秒 五【三組】1 金龍鎭(平安)一分三四秒 2 朴鍾石(忠淸)一分三四秒二 3 朴炳實(中央)一分三七秒

◇千米速度【一組】1 金學俊(慶北) 2 鄭龍俊(咸興) 3 安相鉉(中央) 1 李炳植(忠淸)一分四秒一 2 崔東俊(全南) 秒二 3 李源圭(中央)四分五秒

◇二千米速度【一組】1 金學俊(平安)二分二二秒

◇一萬米速度【一組】1 金學俊(平安)一六分三四秒二 2 李基秀(全南)一六分三七秒 3 宋鍾浩(咸興)一六分四秒 ◇三千米速度 1 金龍鎭(平安) 2 李學振(中央) 3 忠淸

朝華選拔軍決戰 昨日紅白戰終了

朝鮮籠球協會主催 紅白對抗戰은 昨三十日午後二時四十分부터 惠化町府民館에서 擧行되엿는데 결과는 다음과 갓다 【紅】四三 ─ 四二【白】 이리하야 朝華選拔軍은 東京에 원정하야 代表選手를 選拔하고 來八月三日부터 東京에서 開催되는 日本全國大會에 출전하게 되엿다

○朴心順 ○李德順 ○朴昌順 朴聖喜 金明順 朴良秀 金景順 朴公在 全泰淳

鮮鐵軍이 勝捷 對滿鐵庭球戰에

[滿洲鐵道對抗]第一日鮮鐵이 리드한後 第二日單式에 三對二 으로同點이 되엿스나 結局第一日 複式에三對一을 合하여 五對四로 鮮鐵이 勝利하엿다

○戶田(6 4 6 / 6 2 6) 川崎×
×菅(2 3 6 / 3 6 6) 르이코곤○
×八木(4 6 3 / 6 1 6) 國松○
×神代(0 10 4 / 6 8 6) 國松○
○宋次(6 6 / 1 2) 井上×
○永井(5 6 2 / 6 7 2) 河村×

中村豊選手가 俱樂部選手權獲得

京城庭球俱樂部 選手權爭奪決勝은 六月三十日 獎忠壇코-트에서 中村, 野田 兩選手가 午前九時十分에 擧行한바 接戰을 거듭하다가 結局三對二로 中村選手가 選手權을 獲得하엿다

捧高跳世新記錄

【크레스도二十九日發同盟】二十九日全米陸上競技大會最終日의 捧高跳에 리-마-트選手는 四米六〇의 世界新記錄을 樹立하엿다

統制經濟强調週間

第一日은 "自肅休業"

二日부터는 本格的으로 檢察隊를 出動監視

경성부와 부내각경찰서의 공동주최로 열리게되는 통제경제강조주간은 마침내 오늘부터 막을열었다 그중 첫날은 「자숙휴업」의 날이라 전례에 따라서 각 배화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요리점 과 카페- 빠- 등 유흥가에서의 공익사업 이외에는 어느곳을 막론하고 휴업을 한사람 부내각 「자숙휴업」에 호응하여 부내각 완전휴업하고 찻집 가게도 위한 업자에게 주어진 통제는 적극적으로 가격표시검찰대를 출동 케하여 통제경제의 하양을 위하여 협력을 구할 계획 이다 숙사게에 한층더 엄중한 기운을 더해준 것이엇다

本町에 火災

삼십일 오후열 한시사십분경 부내본정(本町)오 정목 십오번지 상회 북편양옥(北原) 의 이층에서 불이나그 공장 일부를 태우고 약삼십분후에 진화하였는데 손해는 칠천원가량 이고 원인은아직 조사중이다

"朝鮮의 精動運動"

內地各方面에서 稱讚

川島總裁 歸任談

【釜山電話同盟】개인관리의 수습 을한후에 중앙당국과 협의하기 위하여 약삼주일동안 동경에가 잇던 국민정신총동원 조선련맹 총재 천도(川島)대장은 부인과 가치 일일아침에 부산에 상륙하 여 부산수산회사(釜山水産會社) 를 시찰하고 동일오후 열차편으로 떠나는 「노조미」로 경성으로 향하엿는데 철도호텔에서 잠시 쉬는동안 다음과가치 말하엿다 동경에 잇는동안에 문부대신과 척무대신을 비롯하여 내각 경제 자관 조선의경제와 정동운동을 잘 이해하여주며 해석하여 주엇다 중앙에서는 중앙과 지방과의 연락 이 긴밀치 못하엿기때문에 그활 동이 부진하엿는데 이번 개조에 따라중앙의 지도를 중심에 두는 기하게되어 이번에는 상당히 철 저한효과를 기대할수잇게 되엇 다 이전에잇서는 조선의 경제 상 나지방조직은 도 부 군 면 정 동리(道府郡面町洞里)의 연 락을 취하게되어서 중앙의 사실을 어떻게 지도하든지 행정 적 조직이 잇서서 그 여지는 매우좁다

紅燈街의 無賴漢

종로경찰서에서는 부내 한남동 에사는 모집 해남(?) 로 부내경찰서에 검거되엇다 이하 생략 [illegible]

護*國*神*社

京城, 羅南御造營基地決定

조선의 호국신사(護國神社)는 경성 용산중학(龍山中學)뒤의 조선신궁과 해남(?)의 명산(明山)기슭에 정하게 되엇다 그리고 경성의 호국 신사는 총독부와 조선군 일부와 결정하고 외외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엿다 어제 부터는 여러 유지들의 협력으로 대부분 봉사하기로 결정하엿다

"홀룽한兵士가되기까지"

◇……朴志願兵과그의令兄의줄기찬激勵

훌륭한 지원병이 되기까지에는 지 원병의 훌륭한 령형이 잇엇든것 이다 전남광양군(全羅南道 光陽郡)사는 박성만(朴成萬)씨 령형은 이아우를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기위하여 만주 모처에 있어서 끈임없이 격려하여 왓다 현재 륙군 보병 상등병(上等兵)으로서 우수 한 성적을 내고잇는데 (사진은 박성만군)

"三倍의能率을!"

興亞奉公日軍司令官의意味深長한訓示

十八年勤續한二氏를表彰

조선군사령부에서는 일일의 흥아봉공일(興亞奉公日)에 보통 군사간보다 한시간빨리 오전일곱시에 출근하여 일동이 봉공일 행사를 행하고 영년근속자 로 공성(功成)씨와 중촌(中村)씨 등 두 사람을 표창하엿다

(사진은 박사장(城崎)씨(우)와 박경씨(좌))

訓示要旨

이에 영년근속자의 표창을 하엿는데 표창된 이세사람은 모두 십팔년이나긴 기간에 부 조런히 일하여온결과이다 독 일이 이번에 큰승리를 하게 된것은 오늘에 처음으로된것 이아니다 이십수년동안 국민 일치로 참으로 피가나도록큰 노력한 결과이다 일이되는것은 되는데에 되는것이아니고 참 으로 이와가치 정녕히끈기잇게 쓰고지만을보고 노력을하여온 결과이것이다 ……

防空演習當日

一般音響禁止

오는칠일 지나사변삼주년기념일을 당하여 오전다섯시부터 일곱시까지 약두시간에걸처 대야(大野)정무총감 통감으로 경성부민을 총동원시켜 대규모 의 방공연습을 거행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날 오전다섯시부터 일곱시까지 사이렌과 경적 그밖의 기적을 울려 일반은 사용할수잇다

色魔假學生

모 사립전문학교의 정모라는 학생이 여학생을 유인하야 거액의 금품을 사기하엿다가 검거되엿다

鈴川知事 管內巡視

경기도 령천(鈴川)지사는 관내 각 부군을 순시하기로 되엿다

專賣局新廳舍 竣工式盛況

전매국에서는 방 지난삼십일에 이전하여 신청사에서 준공식을 거행하엿는데 (사진은 전매국신청사준공식광경)

玄石町會에 三千圓寄附

張基命氏特志

부내 현석정(玄石町)에 사는 장기명씨는 동리 회관의 건축비로 삼천원을 정회에 기부하엿다

紅線筆

각종물자가 귀하게 된 오늘 사치품은 만들지말고 ……

不老長壽 强精田春 更少年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百補丸會社 一割十円

國民保健

世界的新發明의 몸나는藥

肥滿丸

肥滿丸의特効 三四日服用에 몸이 나고 十日 以上 服用하면 肥滿해가 되는 新發明藥이오

實價 普通人用 十圓 虛弱人用 二十圓

安心하고 服用하라 決定的 肥滿해 가된다

本部 平壤府 國民體育會 振替平壤二三〇番

痰と咳に…

コフシロップ

COUGH SYRUP 效果 本位

不正한眼鏡은視力을害한다

눈에合致한「렌-스」만 完全한 專門店에서 調製함

京城帝國大學御用 京城醫專病院眼科 京城府民病院眼科 京城公眼科 龍山鐵道病院眼科 御指定

大學堂眼鏡店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②二三七五番

支店 平壤府本町六 大學堂眼鏡店

秋蒔蔬菜種子

西鮮農林合資會社

七月二日

和信

盛夏用品 大賣出

物價國策에 協力하여 銃後報國에 適合하는 優良實用品을 精選具備하옵고……

食料品	紳士用品	婦人小兒用品	家庭用品
淸涼飮料	本絹와이샤쓰	洋裝用品	유리그릇
시롭平詰合	노-타이샤쓰	小兒洋服	사기그릇
果物〃	넥타이, 短杖	化粧品詰合	모기장카-텐
鑵詰〃	파나마 麻內衣	香水, 비누	藤家具
和洋菓子	가죽가방	핸드빽쇼-루	額椽, 거울
季節各種果實	양말	파라솔	旅行用具
各種반찬	煙草, 喫煙具	하이킹用品	洋服欌, 衣欌

盛夏期에 必要하실……

特選 잣트그라스陳列卽賣會 七月五日부터 七層가라리

七月一日~二十五日 公休日 八日·二十二日·二十九日 (每週月曜日)

京城 和信

2日 封切

近代調を以つて描くハムレットの悩み、ギャングスターの心理、そして愛と復讐の詩。

目擊者

ハーヂェス・メレディス マーゴ 主演

アル・サンテル監督

ドワルド・チャネルリ ポール・ギルフォイル ドワード・エリス モーリス・モスコヴィッチ 助演

阿新丸

松竹京都作品 尾上菊五郎・花井蘭子 岩田英二監督

國軍省 南支派遣軍 支援 作 火野葦平 解說 前田晁

午前十時開演

明治座

2日ヨリ

格子なき牢獄

娘よ何故さらふ

南支制壓軍突如月明を衝いて廣東大攻略戰の展開!作は戰爭文學の第一人者火野葦平、解說は戰況アナウンスの精鋭前田晁――一齣一齣が生々しい現實である記錄映畫と火野葦平の名文とがマッチして文學と記錄映畫の有機的融合という前人未踏の境地、これは輝かしい凱歌である。

コリンヌ・リュシェイル アンニィ・デュコオ 主演

佛アーノルド・アルヌ 三映社提供 ユルヂュ超大作

松竹大船明朗篇 佐野周二 高杉早苗 主演 野村浩將監督

レオニイド・モギィ監督

がっしと青春に取組み高潔な人間精神をもってこれを克服するか?これは千萬人の映畫だ!若き世代に捧ぐ素晴らしい讚典だ!

大陸劇場

朝鮮音萬國記號表示

朝鮮語學會制案 ②

狹義的對照表

홑소리(母音)

	短		長
ㅏ 아들(子)	a	감나무(柿木)	a'(半), a:(全)
ㅓ 어머니(母)	[illegible]	성질(性質)	[illegible]
ㅗ 오빠(男兄)	o	노인(老人)	o.(半), o:(全)
ㅜ 우물(井)	u	부부(夫婦)	u'(半), u:(全)
ㅡ 으뜸(元)	[illegible]	들판(野原)	[illegible]
ㅣ 이마(額)	i	비밀(秘密)	i'(半), i:(全)
ㅐ 애초(最初)	[illegible]	냉수(冷水)	[illegible]
ㅔ 에끼(感歎詞)	e	넷(四)	e'(半), e:(全)
ㅚ 외딸(獨女)	[illegible]	죄인(罪人)	[illegible]
ㅟ 쥐(鼠)	y	쉬(休)	y'(半), y:(全)
ㅟ 위로(慰勞)	wi	쉰(五十)	wi'(半), wi:(全)
ㅢ 의복(衣服)	[illegible]	희우(喜雨)	[illegible]
ㅘ 와락(急速)	wa	광활(廣闊)	wa'(半), wa:(全)
ㅝ 원녀(元來)	[illegible]	권고(勸告)	[illegible]
ㅙ 왜못(倭釘)	[illegible]	괘히(怪)	[illegible]
ㅞ 웨(感歎詞)	[illegible]	궤(机)	[illegible]
ㅑ 야원(野原)	ja	양정(陽正)	[illegible]
ㅕ 여든(八十)	jə	연경(燕京)	[illegible]
ㅛ 요새(近頃)	jo	교묘(巧妙)	[illegible]
ㅠ 유리(琉璃)	ju	윤달(閏月)	[illegible]
ㅒ 얘(此兒)	[illegible]	걔(其兒)	[illegible]
ㅖ 예사(自然)	je	계집(女)	[illegible]

學藝

佛蘭西文學의 苦難 (上)
문허저가는·낡은 歐羅巴 ②
李源朝

佛蘭西文學의 開花期를 루이王朝의 旺盛期라고한다면 開後 四百年間에 그文學이 國家的運命과함께 자못 非常한 苦難을 겪은일은 한두번이 아니엿다 그중에 큰것만추려 보더라도 大革命을 비롯해서 普佛戰爭 前殷世界大戰 또이번

對獨戰爭
의 屈和戰爭이다 그리나 사람의 苦難이란것이 한번지나가면 항상 새로 닥치는것이 未會有의 悲慘한것가치 생각되는것이지마는 事實最近 月餘에 非常한 興味를가지고 우리에게 傳해진 「뉴―쓰」를 들어보더라도 開戰한지 不過旬日에 軍事的要塞線이 突破되고 月餘가 못되서 『베르사이유宮殿』우에 『하―겐크로이체』의 旗幟이 휘날린다는것은 거의 虛無에 가까우리만치 佛蘭西의 國家的運命은 前古未曾有의 悲慘한 地境에 빠진것이 事實이다 勿論 戰爭의 勝敗는 兵力의 强弱에 달린것이니 이에 對해서는 우리들의 關知할 바가아니나 한나라의 運命이 死滅이냐? 復活이냐? 하는 決定的岐路에 다다럿을때 그 文學도 運命을 가치하는것이 事實이라면 實로 佛蘭西文學의 五六世紀에 亘한 傳統한 歷史도

風前燈火
라고아니할 수업다. 그러나 個人의 運命도 豫言할수업는것이며 한물며 한國家나 따라 서 그文化 또 傳統에對해서 豫言을한다는것은 冒險일뿐만 아니라 無智에 지나지못하는 것이니 비록 오늘에 이르렀다고하더라도 佛蘭西의 國家的運命이나 또한 佛蘭西文學이 아프로 어떠케되리라는것은 決코 여기 豫斷할수업는 일이다 그러나 일찌기 十九世紀의 佛蘭西文學이 世界的制覇를하던 華麗한足跡을 돌아보다면 벌서 佛蘭西文學의 將來에對해서 그運命을 云謂한다는 事實부터가 『베르사이유』宮殿우에 『나치스』의旗幟이 휘날리는 政治的事實에比해서 못지아니한

重大事實
임에 틀림업는것이다 그러면대체로 압날의 運命은 모른다 고하더라도 事態가 오늘에이르게되데는 반드시 一定한原因이 잇슬것이며 따라서 그原因은 어떠한 一定한結果를 招來하리라는것은 어느程度로 展望할수잇는것이 아닐까.

이러케되면 본래 오늘날의 事態는 이제 오늘에 始作한 것이아니고 멀리 二十年前 前番世界大戰이 終熄되던날 巴里講和會議라는 아름다운 假裝的會合에서부터 胚胎된것이 事實이엿다 奈翁은 北歐의天

[漢詩募集]
滄東考選
題 新雨
押 先韻部
期限 七月十五日
(朝鮮日報社學藝部)

[二十年間]
... 지난 날을 살어와 그有名한 『모레류』 事件이란것이 一時 佛蘭西文學界 乃至 思想界를 흔들던 原因으로 ...

當選漢詩
滄東考選

綠陰

三等之三 姜鳳泳

落花踏盡遊何處
四月南風萬樹陰
紅褪舊枝仍似蝶
靑抽新葉可藏禽
迎風搖漾微波動
蔽日依俙淡靄深
物態隨時都幻了
莫將榮悴杜勞心

隣近有感 (上)
一隨筆一
鄭飛石

서울도 移居해오지도 거지반 두달이 되엇다。都市살림의 概念조차 모르는 내가 天生 내 어깨에 매달리기로 마련된아해와 두아이를 萬古歷代 보도 듯도못한 서울의 한구석인 北阿峴町에다 데려다 노코、이제부터는 여기서 살어야 한다고 宣言하엿슬때、듯는 그들도따하엿스려니와 命令하는 나로서도 未嘗不 압일이 안득한것이엿다。나라고 가진생도 출것 農村生活만해왓기때문에 말하자면 純시골의기인데다가、안해 또한 나만 못지안케 시골생生이여서 서울서 살어보겟다고는 하지만 모두 東西를 가리지못하는 形便이니 그야말로 딱한 事情이 아닐수 업섯다 허긴 七八年來로 나는한해에 한두차례씩 서울에올機會가 잇섯고 때를 따라서는 달포나 한달一半을 머물러 잇섯스므로 서울거리의 地圖에 生判상님은 아니엇고 안해만큼은 두고 …

尹石重氏童謠集
어깨동무
七月下旬에發行

童謠作家 尹石重氏가 東京에서 一有餘年지나는동안 創作한 童謠를모아 故鄕어린이에게 보내는童謠集 『어깨동무』 가 京城博文書館에서 刊行키로되어 七月下旬에 市場에나오리라한다

作曲은 尹克榮、朴泰俊、洪蘭坡、鄭順哲、任東爀 諸氏가하엿고 表紙、挿畫는 東京서 印刷한 「코르세스・오프셋트」七色版인데 從來에드문 豪華版이라한다

故 朴龍喆氏 追悼會盛況

三十四日下午 天香園에서 故 朴龍喆氏의 追悼會는 豫定대로 二十七日下午四時부터 府民館 小講堂에서 文壇內外의 二百餘名이 모여서 ...

兒童藝術의 現狀 ②
楊美林

◇最近의 動向◇

우리는 世上의모든 現象이나 이것을 두가지方面에서볼수잇다。即 그하나는 外觀으로 보는것이고 또 다른하나는 內面(質的)으로 보는것이다。

最近 數年來의 우리兒童藝術界를 一瞥할때 거기에는반드시 外觀으로만도 말할수업고 또 그러다고 質的으로만 論하기도 어려운問題가 潛在하고잇다。

兒童文學의 水準은 確實히 向上하엿스며 鄭芝溶氏의 童謠、兒童映畫 「授業料」 等의 出現은 朝鮮兒童藝術界의 新局面이라고 아니할수업다。

그러나 各部門의 跛行的 成長은 否認할수업스며 이것이 均衡平行치안는限 健全한 發達이라고 말할수는업다。

◇跛行性의 原因◇

有期間에 잇서서 한가지의 完璧만이 不足하여도 死滅하거나 健全한 發育을 못하는것과 마찬가지로 文化部門에잇서서도 다시 文化部門에 잇서서도 各部門의 均衡을 일코 跛行的으로 成長하여서는 滿足한 綜合的成果를 바랄수업다。

그러므로 우리는 朝鮮兒童藝術의 各部門現狀을 잘살펴보고 跛行的原因을 除去하며

共存共榮

相互扶助

◇批評에 對한 批評◇

兒童問題

朝鮮現狀

藝術以前

第五回 音樂콩쿠르
今秋開催
詳細追後發表

指定曲目 審査委員會決定發表

聲樂部
一、나의女王 (Wie bist du Meine Königin) ……브람스
二、사랑의노래 (Minnelied) ……브람스
三、小夜曲 ……리카르트 스트라우쓰
四、두명의精兵 (Die Beide Grenadiere) ……슈―만

提琴部
콘첼토(D短調 十九番) 第一樂章 (Konzert d moll No-19) ……크로이처

첼로部
콘첼토四番 G長調 (Konzert No. 4 G Dur) ……홀라만

洋琴部
全樂章(反復不要) (Sonata No. 14) 奏鳴曲(A長調) (Variation) A Dur ……모차르트

主催 朝鮮日報社

合理的心身鍛鍊法 (十三)
陸軍中將 秦眞次

修養

2、斥候
가、斥候出發時의注意

6、言語態度를바르게하는訓練

滄東散人
愼后의哀話 (三)

蘇聯의新聞

新刊紹介

前大戰停戰命令書

文章
夏期特大號 特價七十錢 送料三錢
京城府鍾路 文章社 振替京城二五〇七〇

附錄① 鳳山假面劇脚本

小說 初終記……趙容萬
小說 趣味와딸과……崔泰應
小說 金氏夫人傳……春園
小說 어둠속에서……安懷南
小說 노고지리 우지지다……金南天
小說 酒朋……俞鎭午
小說 業苦……鄭人澤
小說 帝高陽之苗裔……崔仁俊
小說 밤길……李泰俊
長篇 愛經……朴泰遠
小說 秋夜……치호・마로
連載 仁顯王后(朝鮮語古典)……李秉岐
孤獨(나의小說修業)……朴榮濬
詩 抒情詩抄……巴人
詩 北方에서……白石
詩 달업는밤에도……毛允淑
詩 靜夜……一石
詩 날어간눈물……金珖燮
詩 江을건너……吳章煥
譯詩 달밤(雅慕)……爾豪愚
現實主義的傾向……尹圭涉
佛語擁護論……李源朝
居祖庵佛幀……高裕燮
渡江錄(朝鮮漢文古典選)……李允宰
攻守評論 映畫人安夕影・金管 文壇人李軒求・金南天
예전日記……任英彬・紅、疫……張萬榮
허수아비……韓稚振・手形과原稿……崔明翊
移徙記……鄭飛石・繪事閑想……尹喜淳
나의所願……李敭河・初夏脚談……愼兌範

附錄② 外來語表記法

醫學博士 三浦良雄
內臟外科 一般外科 肛門外科 レントゲン科
入院病室完備
三浦外科
京城府黃金町一ノ一九六
電話本局(2)一八四八番

齒科 金喆庸
京城樂園町一四六
電光2191

租界開放과今後 聯銀券基礎强化

天津英佛租界問題解決에 저 나아가 日을期하여 施行되었으며 昨年七月十四日의 封鎖以來 滿一個年과 七日間의 長期에 亘하여 天津에있어서의 經濟事情은 當時에比해서 相當한 變化를 示하고 北支의 情勢도 亦是 轉換期에 直面하고있는데 租界解決로 依하여 생기는 經濟的影響 特히 貿易, 通貨, 金融, 商業等에 對하여 보면 如左하다.

一、貿易=英佛租界解決로 가장 打擊을 받은것은 日支兩國의 貿易商社로 租界內의 工場을 利用하야하는 北支土産物인 羊毛皮의 輸出品은 大概 外國商社에 依하여 獨占되고있섯는데 ... [illegible]

適時雨의惠澤으로 二千萬石收穫豫想
三百萬石의移出餘裕確實視

六月下旬의 大量降雨와 昨三十日來의 全朝鮮的降雨로 今年의 水稻植付는 確實視되고 이미 그移秧面積도 昨年의總移秧面積에 比하여 二割增을 示하고있는데 朝鮮米의 平年作은 二千三百乃至二千四百萬石에 達하는바 今年의消費豫定量을 二千二百萬石으로하면 三百萬石의剩餘量을 示하게 되는것으로 豫想된다. [illegible]

上半期銀行業績 大體成績良好
漢銀東銀은一分增配申請中 其他는据置、社內留保

朝鮮內各銀行은 六月三十日로 一齊히 上期決算을 마감하고 目下 精算中인데 그業績을 綜合하면 各行이 모두 자못 良好한 成績을 보이고있다

一、預金貸出計數增加 [illegible]

一、貸出回收順調 [illegible]

一、株式의値下에影響僅少 [illegible]

一、資産內容充實 [illegible]

鮮銀 各支店의 報告未着으로 期末數字不明하나 業績은 依然良好하며 配當은 年六分据置로 八月中旬 總會

殖銀 預金貸出의 計數는 各支店의 報告未着으로 不明이나 ... [illegible]

商銀 [illegible]

漢銀 期末預金 [illegible]

東銀 期末預金 [illegible]

貯銀 의業績은 如左하다 [illegible]

朝鮮物産見本市 新京서開催

[illegible]

日銀·鮮銀券 繼續膨脹

連日膨脹을 거듭하는 日銀, 鮮銀兩銀行券發行高는 [illegible]

航空用燃料 朝石에서製造計畫

朝鮮石油에서는 今回에 拂込資本金 二百五十萬圓과 借入金 約五百二十萬圓의 調達로서 新規事業計畫을 決定하였는데 計畫의 主要한것은 如左하고 特히 航空用高級燃料 어 各石油會社에 앞서 着手키로된것은 注目된다 [illegible]

九·一八價格보다 一齊히引上公定
醫藥品은六割二分의大幅引上
新公定價自一日實施

總督府에서는 去二十八日의 第十二回 物價委員會에서 審議決定한 投藥瓶, 其他의 公定價格을 一日附官報로써 公示 卽日實施하였는데 決定內容은 다음과 같다 [illegible]

洋反物販賣價格

番號	品名	品位等級	單位	最終卸賣販賣價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形의販賣價格

番號	品名	品位等級	單位	價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投藥壜販賣價格

種別	單位	價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學習帳販賣價格

種別	規格	枚數	價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學노-트

種別	枚數	價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産日本藥局方알콜의販賣價格

品名	容器	單位	價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漢藥販賣價格

品名	單位	釜山府	京城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洋藥의販賣價格

品名	單位	價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實物取引 初取引開始
場外에서市中心으로

朝取實物市場에서는 今一日을期하여 새로이 場外現物取引을 開始하였는데 市場中心主義의 理想下에 取引을開始하였다 今日午前九時 新出委員長의 人事가 있은後 新取引員의 紹介等이 있었다 [illegible]

朝取現物賣買價

[illegible]

今日財界一日

[illegible]

株式 警戒賣로 下落

今日의市勢 一日

前場瓦落 一休할지 낙속 朝 [illegible]

後場下止 [illegible]

透視難深甚

[illegible]

現物氣配低落

[illegible]

今日現株氣配 (正午調)

[illegible]

東京國債

[illegible]

物價

[illegible]

海外經濟 廿九日

[illegible]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廿九日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株式 / 棉花 / 綿布 / 生絲 / 綿油粕·麥粉

[illegible]

日本實物市場

[illegible]

三田原取引店 營業案內進呈 京城府黃金町

三國志 【242】

韓雲卿 譯 / 熊超 畵

孔明의遊說江東(四)

공명이 듯기를 다하든에 아연히 웃스며 말하엿다 『봉새(鳳)가 만리를 날때 뭇새들이 어찌 그뜻을 알리오 비타건대 사람이 중한병을 아른뒤에는 마땅히 먼저 미음을 맥이고 부드러운약을 쓰다가 장사가 조화되고 기운이 도라선뒤에 고기도 맥이고 독한 약으로 다스리면 병근이 업서지고 사람이 완전하거니와 기운이 평복되기전에 독한약과 조흔 음식으로 다시르면 실로 치료하기가 어려울지라 우리 주인 유예주가 저즘께 군사를 여남에서 패하고 ... [illegible]

날을이으지 못하얏으나 박망에서는 화공을하고 백하에서는 물을대어서 하후돈과 조인의 무리로 하여곰 마음을 놀래고 가담이 서늘하게 하엿스니 간절히 생각컨대 관중 악의의 용병도 반도시 이에 지내지 못하엿슬것이며 ... [illegible]